

[경제]

GDP 5% 성장, 실질소득 증가는 2.3%뿐

(국내총생산)

■韓銀 2006 국민계정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과 환율하락 등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로 인해 국민총소득(GNI)이 2.3% 성장하는데 그쳤다.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0%를 나타내 GNI증가율이 GDP성장률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 다만 지난해 민간소비와 내수회복에 힘입어 작년 4·4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소폭 상회해 경기 조정국면이 예상보다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06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GNI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지난해보다 2.

국민소득 증가율 11년째 성장률 밑돌아

환율하락에 1인당 GNI는 1만8,372弗

3%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전년도 GNI 성장률 0.7%보다는 늘어난 것이지만 여전히 실질 GDP 성장률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특히 95년 GDP성장률이 9.2%를 기록하고 GNI 증가율이 9.5%를 나타낸 이후 11년째 GNI 성장률이 GDP 성장률을 밑도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실질 GNI는 물가 등을 감안한 국민소득의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수치가 GDP 성장률을 크게 밑돈다는 것은 경제의 외형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실제 소득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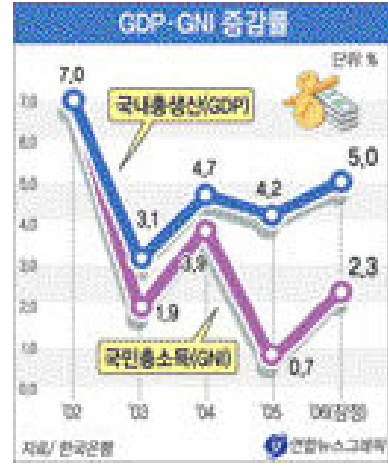
가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 수출가격 하락 등 교역조건이 악화된 탓이다.

실제로 지난해 교역조건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실은 68조원으로 2005년의 46조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이관준 경제통계국장은 "올해는 유가가 안정되고 반도체 가격 하락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GDP와 GNI간 격차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이후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경기조정 국면은 다소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분기 GDP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9%로 1월말 제시된 한은의 속도보치인 0.8%에 비해 다소 높았다. 이는 지난해 12월말 예상치인 0.7%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즉 한은이 지난해말 예상한 것보다 경기 조정폭이 심각하지 않다는 의미로 경기 연착륙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2.6%)과 건설업(-0.1%)의 생산이 다소 감소한 반면 제조업(8.4%)과 서비스업(4.2%)은 성장세가 확대됐다. 지출항목별로는 건설투자(-0.4%)의 부진이 이어졌지만 민간소비(4.2%)와 설비투자(7.6%)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재화수출(12.6%)도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



가장 혹사 당하는 車 뭘까 장거리 운행 '고속버스' 하루 평균 442km 주행

각종 자동차 가운데 가장 '혹사'당하는 차는 무엇일까? 21일 교통안전공단이 '2005년도 자동차 주행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속버스의 1일 평균주행거리가 442.76km로, 전체 자동차의 1일 평균주행거리 58.61km에 비해 7.5배 가량 길었다.

이어 시외버스가 400.79km로 조사됐으며, 특수 견인차 차량 322.24km, 법인택시 318.82km, 시내버스 268.25km, 화물일반형 대형 253.95km, 전세버스 172.93km, 개인택시 169.39km 등의 순이었다.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가운데는 특수 자동차가 71.35km로 1일 평균주행거리가 가장 길었고, 화물 자동차 60.5km, 승합자동차 57.18km, 승용차 44.34km 순으로 집계됐다. 또 자동차 1대당 1일 평균주행거리는 58.61km로, 지난 2004년 60.9km에 비해 2.2km 정도 줄었다.

지난해 말 만들어진 이 보고서는 지난 2005년 한해 1천952개 검사장소에서 검사를 받은 309만4천4대를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다. 이는 2005년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의 20.2%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국내기업 R&D투자 비중 30대 기업이 91% 차지

삼성전자 37.3% 1위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R&D)투자가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 집중돼 있고 투자분야도 전기·전자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펴낸 조사연구 보고서 '기업 연구개발투자자와 성과 2006'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 중 매출액 상위 750개 기업의 2005년도 R&D투자액은 14조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6.7%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이들 기업의 매출액이 전년대비 약 5% 성장한 데 그친 것에 비하면 R&D투자는 크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 750개사의 R&D 투자액 중에서 37.3%를, 삼성전자를 포함한 매출규모 상위 30대 기업은 91.0%를 차지해 국내 민간 R&D투자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반영했다.

R&D투자액이 1조원을 넘는 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가 새로 포함돼 삼성전

자, LG전자와 함께 3개사로 집계됐다. 매출액에서 R&D투자액의 비중을 뜻하는 R&D집약도 측면에서도 삼성전자는 9.42%로, 최고치를 기록, 2~10위 기업들의 2.4%에 비해 큰 차이를 나타냈다.

분야별로는 전기·전자에 대한 투자액이 조사대상 기업의 R&D투자액 중 60% 이상을 차지, 자동차·운송장비 15.2%, 화학산업 6.5%, 통신 6.2%에 비해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전기·전자 산업의 R&D집약도는 6.63%를 기록해 통신 산업 2.60%, 자동차·운송장비산업 2.4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화학산업의 R&D집약도는 1.02%에 불과해 이 분야의 R&D투자가 극히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 등록 벤처기업의 경우 R&D투자 비중이 전체 750개사 중에서 3% 수준으로 규모는 작지만 R&D집약도는 3.38%를 기록해 R&D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줬다. /연합뉴스

'父子 경영권 갈등' 빚는 동아제약

강문석 부회장 "경영복귀 자신 있다"



전무에게 물리며 각을 세웠다.

동아제약의 기업 실적은 좋아졌지만 회사 내부에서 엄청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회사의 미래가 처한 핵심인재들을 뿌듯한 이유도 없이 퇴출하는 등 구성원들의 결집력도 크게 훼손됐다는 것이다.

강씨는 나아가 강 전무가 자신의 뜻에 맹종하는 내부 구성원을 회장님(강 회장) 주위에 포진시킴으로써 회장님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자신의 세력 구축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강씨는 "이렇게 가다가는 동아제약이 글로벌 제약기업은 커녕 국내 1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주변의 오해를 무릅쓰고 경영권 참여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공정위, 허위광고 10개 여행사 시정조치

여행상품 판매시 적시한 가격 외에 추가되는 비용이 없다고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공항세나 추가 관광 등의 경비를 받은 모두투어 등 10개 여행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여행상품을 신문에 광고하면서 추가 경비 등에 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10개 여행사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모두투어와 인터파크, 노랑풍선, 앤드아이 등 4개사는 시정명령을 받았고 롯데관광개발과 디너투어, 자유투어, 보물섬투어, 온누리레저개발, 오케이투어 등 6개사는 경고를 받았다. 조사결과 모두투어 등 8개사는 추가 경비가 없다는 광고와 달리 고객에게 유류할증료나 인천공항, 관광진흥기금, 전경보험료 등을 별도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고(故) 정주영 전(前) 현대그룹 명예회장 6주기인 21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가운데)이 경기도 하남시 창우리 선영에서 현대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범현대가 '王회장' 선영 참배

정주영 기념관 건립 추진

범(汎) 현대가가 21일 고(故) 정주영 전(前) 현대그룹 명예회장 6주기를 맞아 하남 창우리 선영에 모여 고인을 추모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정몽준 의원, 정지선 현대백화점 부회장, 정몽운 현대해상 화재 회장, 김영주 한국프랜치 명예회

장, 정몽일 현대기업금융회장 등이 선영을 찾았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장녀인 정지아 현대유엔아이 전무를 동반하고 오전 11시께 그룹 계열 7개사 사장단과 함께 참배했다.

범현대가 장자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지난 주말 선영을 참배해 이날 불참했다.

정몽준 의원은 이날 참배를 마친 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으며, 현대상선 경영권 문제에 대해서는 "아버지 기일이니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발언을 삼갔다.

앞서 그는 전날 기자들에게 "선친 10주기를 맞아 정주영 기념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집안에서 추진중"이라며 "현재 기념관의 용도와 규모 등에 대해 검토중인 데 가급적 젊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한다"고 말해 범현대가에 서의 향후 역할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美최고기 OIE기준 수용 않겠다"

(국제수역사무국)

박홍수 농림부장관 밝혀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1일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와 관련,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을 조건없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KBS라디오 '라디오정 보센터 박에스터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5월(OIE 총회에서) 미국이 광우병 위험 통째국으로 분류되면 빼 있는 쇠고기 수입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OIE 판정은 고려 사항이지 구속 사항이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OIE의) 최종 결정이 나기 전에 빼 수입하는 문제를 미리 논의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현재 고위급 협상에서 미국측이 견지하고 있는 주장을 반박했다.

미국측은 현재 OIE 총회에서 오는 5월 자국의 '광우병 통째국 등급' 판정이 확실한 상태이므로 즉시 빼를 포함한 쇠고기 전면 수입이 가능토록 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기본 사항에 합의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5월 판정이 확정되더라도 자체 위험 평가 등 수입국의



관리를 최대한 행사한 뒤에야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협의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박 장관은 또 "최종 고위급 협상까지 가면 결국 큰 틀에서 '주고 받기'가 불가피하지 않나"는 질문에 "현재 정부는 철저하게 산업별로 독자적 협상을 하고 있다."

농업 부분 안에서, 예를 들어 축산·곡류 이런 작은 분야 속에서 주고 받기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산업끼리 주고 받는 것은 서로 이해할 수 없다"며 이른바 '빅딜'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호남대학교 학교기업	모바일 콘텐츠 연구생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교육비무료	03/23	062-380-8400
상우정공	사무보조 및 경리업무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000~1200	03/24	011-634-7146
홍남축판*	(총무/생산부)정규직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3/25	061-393-8171
광주통신공사	SK텔레콤 중계기 시설공사 사무실 CAD역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3/26	062-372-3600
광천리인	전자제품 보조기사 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3/27	062-959-1411
신들촌	경리/회계 담당 경력자 모집	고졸/경력2년	1000~1200	03/27	062-512-8912
컴텍광주	IT관련 경력 및 신입 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30	062-523-0504
인택PNS	BOX 가공 및 조립 / 물류대차 제작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30	010-6607-7907
수완에너지*	수완에너지(주) 신입사원 채용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30	02-2210-0187
웹이츠	인타넷소싱 (비보사령) 웹디자인 팀장급 모집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03/31	062-717-5036
진호	배송 및 관리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600~1800	03/31	062-265-6250
도원	광주 피리비게트 MD매니저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3/31	062-381-8201
디지털콘텐츠진흥연구원	디지털콘텐츠진흥연구원 연구원 채용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3/31	061-330-4043
다이아얼타	시진편집디자이너 팀장급 사원모집	고졸/경력1년	1400~1600	03/31	010-6775-3434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대기업 직장인 주말 비용 평균 5만~10만원 쓴다

대기업 직장인들은 주말 비용으로 평균 5만~10만원을 지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LG화학은 최근 임직원 2천975명을 대상으로 '주말 생활문화'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주말에 5만~10만원의 돈을 쓴다는 응답비율이 40.54%로 가장 높았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3만~5만원(34.08%), 3만원 미만(15.63%), 10만~20만원(9.18%), 20만원 이상(0.57%) 순이었다.

무엇을 하면서 주말을 보내느냐는 질문에는 수면, TV시청, 독서 등 집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응답이 46.02%로 가장 많았고, 쇼핑이나 외식 등 시내 나들이가 31.93%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국내여행은 6.92%였으며, 종교나 동호회 활동 등 기타 소수 의견을 합친 응답은 15.13%였다.

금·토·일요일 중 언제가 가장 좋으냐는 물음에는 금요일 밤을 꼽은 응답이 45.71%로 으뜸을 차지한 데 이어 토요일 낮(27.33%), 토요일 밤(22.59%), 일요일 낮(3.43%), 일요일 저녁(0.94%) 순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 성공여부 입사 3년내 결정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은 직장에서의 성공 여부가 입사 3년 안에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가 경력 3년 이상 직장인 1천913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으로서 발전 가능성이나 한계 등이 결정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을 묻는 질문에 33.5%가 '입사 3년'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입사 2년'은 26.7%, '입사 1년'은 24.6%를 차지, 전체 응답자의 84.8%가 입사 3년 이내에 회사 내에서 자신의 입지가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직장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성공요소로 매다수의 직장인들은 '직장 선후배, 동료와의 원만한 관계'(27.8%)와 '근면하고 성실한 근무태도(26.6%)'를 꼽았고, '일과 관련된 인맥의 확장'(6.3%), '뛰어난 업무 능력'(16.0%), '처세술'(11.6%) 등이 뒤를 이었다.

직장인으로서 자신의 경쟁력을 묻는 질문에는 '업무 수행능력'이 41.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근면 성실한 자세'(33.1%), '인적 네트워크(10.3%)', '뛰어난 처세술(6.5%)' 등의 순이었다.

커리어 김기태 대표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입사 3년 안에 평생 경력이 좌우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평생직업의 시대가 되면서 연봉보다는 직무나 기업에 대한 안정성과 발전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